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관 개관

'민족대표 33인의 뜻 널리'

장수 번암면에 건립...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

백용성조사 생애 · 독립운동 · 민족계몽 활동 소개

전북특별자치도와 장수군이 번암면에 건립된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강운진 국가보훈부 차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스님, 최훈식 장수군수, 박희승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자리했다.

장수 출신인 백용성조사(1864~1940)는 불교계 대표 독립운동가로,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일제 탄압 속에서도 불교 총흥과 민족계몽운동을 이끈 선각자로 평가받는다. 1919년 민족대표로서 발휘한 지도력과 이후 투옥에도 꺾이지 않은 독립 의지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롭게 문을 연 기념관은 백용성조사의 정신과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기 위해 2022년부터 조성됐다. 총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국비 2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35억원, 자부담 10억원으로 구성됐다.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후손에게 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념관은 1,000㎡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백용성조사의 생애와 독립운동·민족계몽 활동을 소개하는 상설 전시관을 갖는다. 불교 대중화 운동과 근대 교육 활동을 조명하는 자료 전시 공간, 청소년과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독립운동 교육 콘텐츠도 마련해 모든

세대가 그 역사적 의미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광자원 연계, 기념사업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백용성조사는 전북이 낳은 위대한 애국지사이자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이번 개관이 지역 독립운동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백용성 조사 기념관은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돕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은 기념관을 중심으로 현충·보훈 사업 등을 지원해 백용성조사를 비롯한 장수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계승·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장수=고관호 기자



4일 장수군 번암면 죽림정사 교유관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관 개관식 행사에 강운진 국가보훈부 차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스님, 최훈식 장수군수, 박희승 국회의원, 도의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석해 개관식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장수군청 제공〉

전북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청신호' 켜졌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기본설계비 9억원 반영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기본·실시설계비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 추진해 온 가력선착장의 국가어항 지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2026년 정부예산안에 기본설계비 9억원이 반영됐다.

4일 도에 따르면, 부안의 가력항은 지난 8월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평가에서 10개 예비대상항(전국 3위)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예산 반영은 가력항이 국가어항으로 발돋움하며, 새만금 권역의 수상교통 거점이자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가력선착장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대체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방파제와 물양장 시설만 갖춰져 있어 여러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어민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극히 제한적이며, 접안시설 부족으로 선박들이 다중으로 접안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여건은 어업인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화재나 태풍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일상적인 출입항 과정에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으로 가력항은 본격적인 국가어항 지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우선 기본설계 작업을 거쳐 2026년 말까지 국가어항으로 공식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1단계 개발사업에는 182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1단계 주요 사업 내용은 부잔교 6기이며, 장래 사업으로 방파제 390m 신설, 호안 320m 조성, 부잔교 5기 설치, 부지 조성 1만5,750㎡ 확보 등 향후 어항의 기능 확대 대비 시설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가력선착장 확장공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총 1,123억원 규모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파제 781m, 물양장 601m, 부잔교 3기, 여객부두 50m 등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가력항의 기본 인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일상적인 출입항 과정에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으로 가력항은 본격적인 국가어항 지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우선 기본설계 작업을 거쳐 2026년 말까지 국가어항으로 공식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1단계 개발사업에는 182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1단계 주요 사업 내용은 부잔교 6기이며, 장래 사업으로 방파제 390m 신설, 호안 320m 조성, 부잔교 5기 설치, 부지 조성 1만5,750㎡ 확보 등 향후 어항의 기능 확대 대비 시설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가력선착장 확장공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총 1,123억원 규모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파제 781m, 물양장 601m, 부잔교 3기, 여객부두 50m 등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가력항의 기본 인

프라가 개선될 전망이다.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2027년 이후 국가어항 초기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시, 가력항은 새만금 권역의 핵심 거점어항으로 거듭나게 된다. 어선 수용능력이 확대되고, 체계적인 어항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어업인들의 작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력항과 함께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도 이번 예산안에 함께 반영됐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 48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방파제 140m 연장, 호안 240m 신설, 접안시설 507m 확장, 공유수면 32,366㎡ 매립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섬 지역 어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소득 증대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은 가력항이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국가어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가력항 국가어항 신규지정과 설계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2028년부터 본격적인 초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포함 전국 노후주택 신속 정비 나서

김문덕 국토부장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통해 사업기간 단축할 것"

LH 미래도시지원센터 전문 컨설팅 · LX 전자동의시스템 등 통해 기간 단축

전북 출신인 김문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서부터 도내까지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관련, 신속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그는 집값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하나의 팀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4일 김문덕 국토교통부장관에 따르면 국토부가 중심이 돼 중앙정부와 국회, 지자체, 지원기구가 하나의 팀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을 이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장관은 3일 먼저 경기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



을 방문한 김 장관은 노후주택과 주민 생활 불편 사항을 살피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지정을 계기로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기반이 마련됐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

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전문 컨설팅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전자동의시스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비 지원 △한국부동산원의 분담금·공사비 검증 등 지원기구의 협력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이번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안양을 비롯한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금길

토 · 일요일 신문 쉽다.

